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7. 13. (목), 13:3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차기신청대상 선정 | |
| 2 | 「대곡천 암각화군」 등재신청 대상 선정 | |

【보고사항】

- | | | |
|---|------------------------|--|
| 3 | 「한양의 수도성곽」 예비평가 요청서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차기신청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유네스코에 제출할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모범사례, 대표목록, 긴급보호)는 다등재국의 경우 2년 1건으로 심사 제한 중
 - 우리나라는 현재 22종목 등재로 다등재국으로 분류, 심사 제한 대상임
- 2024년도 등재예정인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이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대상의 등재신청서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61호) 제6조에 따라, 대상은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함
- 이에 2023. 3. 27.~5. 8.(43일 간)에 걸쳐 등재신청대상 공모를 실시, 접수된 14건에 대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차기 등재신청종목을 선정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심의대상)<세부내용 첨부4>참조

연번	제목	종목	분야
1	농요	예천통명농요(국가 제84-2호), 고성농요(국가 제84-1호), 남도들노래(국가 제51호), 마들농요(서울시 제22호), 수영농청놀이(부산시 제2호), 구미 밭쟁이 들소리(경북 제27호), 들말 두레소리(대전시 제13호), 안동 저전농요(경북 제2호), 상주민요(경북 제13호), 모전농요(경북 제46호), 김포 통진 두레놀이(경기도 제23호), 결성농요보존회(충남 제20호), 예천공처농요(경북 제10호), 진천 용몽농요(충북 제11호), 영동 설계리농요(충북 제6호), 평택 민요(경기 제48호), 평북농요(평북 제4호),	전통공연·예술

		고양들소리(고양시향토 제57호)	
2	자리걸이	자리걸이(경기 제61호)	의례·의식
3	경기도당굿시나위춤	경기도당굿시나위춤(경기 제64호)	전통공연·예술
4	송서올창	송서올창(경기 제54호)	구전전통
5	풀피리	풀피리(경기 제38호)	전통공연·예술
6	인삼문화: 자연과 가족(공동체)를 배려하고 감사하는 문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국가 제143호) *공동체종목	전통지식
7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	한지장(국가 제117호), 지장(전북 제35호), 한지장(경남 제46호), 한지장(경북 제23-2호) 지장(경기 제16호), 한지장(강원 제32호), 한지장(전북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전통기술
8	가야금산조및병창	가야금산조 및 병창(국가 제23호)	전통공연·예술
9	사기장(백자)	사기장-백자(경북 제32-4호)	전통기술
10	진도지역의 3개 상장례의식	진도셋김굿(국가 제72호), 진도다시래기(국가 제81호), 진도만가(전남 제19호)	의례·의식
11	염색장	염색장(국가 제115호)	전통기술
12	막걸리빚기	막걸리 빚기(국가 제144호) *공동체종목	전통생활관습
13	서울새남굿	서울새남굿(국가 제104호)	의례·의식
14	장철영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나전장(국가 제10호)	전통기술

라. 추진 경과

- 등재신청대상 공모 실시 2023. 3. 27. - 5. 8.
 - 기 간: 2023. 3. 27.(월) - 5. 8.(월) / 43일간
 - 대 상: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 *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와의 공동 신청 경우 우선 고려
 - 접수결과: 14건 접수

사. 참고사항(향후 일정)

-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선정 이후~'24년 1월: 신청서 국문본 수정 및 검토
 - '24년 2월~3월: 영문 번역, 영문본 검토 수정, 동영상 제작
 - '24년 3월 31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 제출
 - '25년 11월~12월: '26년도 심사 및 등재결정 대상으로 선정
 - '26년 3월~9월: 등재신청서 심사
 - '26년 10월: 등재신청서 심사결과 공개
 - '26년 11월~12월: 등재결정
- 등재신청서 수정 작성 및 검토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관련

전문가 및 해당 유산 전승자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임

아.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2024년도 등재신청 대상은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로 함
 - 2026년도 등재신청 대상은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로 함
 - 출석 6명 / 가결 5명 / 제척 1명

- ※ <첨부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 ※ <첨부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심사절차
- ※ <첨부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개요 및 현황

첨부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및 <협약 운영지침> 상 등재기준

✓ 대표목록 등재 기준

기준 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에 나오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충족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 자연과의 교류, 존재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조)

기준 2) 해당 유산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대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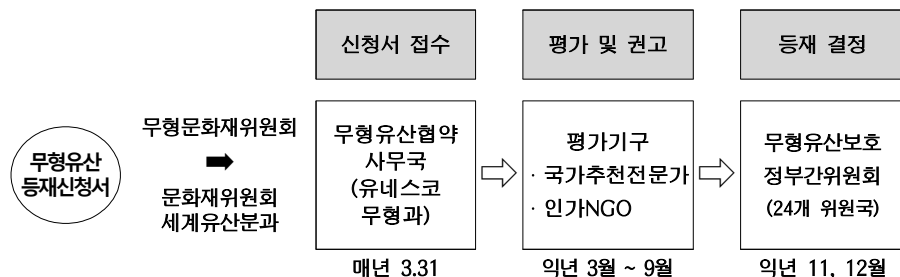
기준 3)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Safeguarding measures)가 마련되어야 함

기준 4) 등재신청 시 관련 공동체, 집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의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기준 5) 해당 유산은 등재 신청 당사국의 무형유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첨부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는 각 국가에서 제출한 등재 신청서와 평가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협약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무형유산을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로 등재함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국으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이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무형유산관련 신청서 심의, 무형유산기금 운영, 무형유산협약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의결 (매년 11~12월경 개최)

** **평가기구**: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목록등재, 국제원조)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국가추천전문가, 6개의 인가NGO 대표자로 구성됨. 임기는 4년이며 매년 3석 개선(改選)

※ 원칙적으로 신청서는 매년 제출 가능하나 유네스코 사무국의 인력, 예산 부족으로 다등재국은 2년 1회로 심사 제한 실시 중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22건/ 중국 36건, 일본 22건) 다등재국으로, 심사제한 중

첨부 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개요 및 현황

(2023. 7. 4. 기준)

구분	인류무형유산
연 혁	○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 2005년 우리나라 가입 ○ 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 신청주기 : 매년(다등재국은 제한) ○ 신청서류 제출 : 매년 3.31까지
절 차	<국 내> ○ 신청대상 선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 <국 제> ○ 검토 및 평가 : 정부간위원회 평가기구 (제출익년 3월~9월) ○ 최종심의 · 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11월)
등재 현황	22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01.5.18) 판소리 ('03.11.7) 강릉단오제 ('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09.9.30) 가곡, 대목장, 매사냥 ('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11.11.29) 아리랑 ('12.12.5) 김장문화 ('13.12.5) 농악 ('14.11.27) 줄다리기 ('15.12.2) 제주해녀문화 ('16.11.30) 씨름 ('18.11.26/ 남북공동등재) 연등회 ('20.12.16), 한국의 탈춤 ('22.11.30)
	잠정목록 : 잠정목록 제도 없음
	북한 (4건) : 4건 북한의 아리랑 ('14.11.27), 김치 만들기 ('15.12.2), 씨름 ('18.11.26/ 남북공동등재), 평양냉면 풍습('22.11.30.)
	세계 : 677건(140개국) / 협약가입국 181개국 중국 36건, 튀르키예 23건, 프랑스 22건, 일본 22건, 스페인 19건, 크로아티아·이란 18건 등 ※ 공동등재 74건 101개국

2. 「대곡천 암각화군」 등재신청 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신청명 <반구천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3년 제4차 회의(2023.4.13.)에서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제13조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 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간의 추진경과

○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5.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부결”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선정”
- 2022.5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 2022.12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 2023.4월 : 등재신청후보 선정 심의 “가결”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추진경과

- 2023.2.20. : 제1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구성요소, 보존관리 등 보완 필요)
- 2023.3.15. : 제2차 소위원회 개최(유산설명, 비교연구, 보호관리 등 보완 필요)
- 2023.4.6. : 제3차 소위원회 개최(등재기준, 비교연구, 보호관리 요건 등 서술보완 필요)

라. 등재신청 대상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등재신청서 주요내용

1) 유산 설명

○ 종합요약

- 신청유산은 동아시아 대한민국 동남부 연안 지역의 반구천 일원에 위치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가늘고 긴 감입곡류 하천의 수려한 경관을 따라 절리와 층리가 발달한 암벽이 노출된 약 3km 구간 안에 위치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그림과 문자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포함하는 단일유산이다.
- 반구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기원전 5,000년부터 9세기까지)에 걸쳐 돌, 금속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 인물, 사냥장면, 동심원, 마름모, 문자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그린 유산이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세계와 문화를 반영한다. 특히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의 종이 구별될 만큼 고유한 특징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양한 고래의 모습, 고래잡이의 과정 중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를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가장 이른 시기 유산이자 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작품이다.
- 반구천의 암각화는 약 6천 년 동안 반구천 일원의 특별한 공간에서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이다. 다양한 그림과 문자는 암각 제작 전통의 독보적

증거이다. 신청유산의 제작 전통은 신석기 시대의 동물 그림이 담긴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제작을 시작으로 하여,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 신라 시대 그림과 문자를 담은 천전리 각석으로 이어졌다. 동일한 공간에 누적되어 남아 있는 서로 다른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각 문화의 순간을 담고 있으며,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렵채집사회, 농경사회, 고대(신라) 국가로 변화하는 사회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례적인 유산이다.

- 반구천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 모습을 집약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유산이다.

○ 등재기준의 타당성

기준 (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결과

반구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이 지역 사람들의 예술세계와 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희소한 주제인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최고의 작품이다.

기준 (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반구천의 암각화는 약 6천 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이다. 반구천의 특별한 공간을 따라 바위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누적된 제작 전통의 독보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선사 시대부터 역사 시대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 단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례적인 유산이다.

○ 완전성에 대한 기술

- 반구천의 암각화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모든 속성을 전체적으로 잘 포함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규모는 수천 년 동안 암각화의 제작 전통이 이어진 반구천 일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신청유산의 바위면 일부는 완충구역 밖에서 이루어진 댐 건설로 파생된 환경적 압력을 받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압력은 매우 저감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완전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진정성에 대한 기술

- 반구천의 암각화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 신청유산은 처음 조성된 원래 자리에 위치하며 주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유산의 주변 지형은 고환경의 변화 또는 댐 건설로 인한 변화와 회복 과정을 겪었으나,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루는 전반적인 속성은 변함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 반구천의 암각화는 「문화재보호법」이 중심이 되어, 「수도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의 지원에 따라 개발행위 등 압력 요소로부터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그림과 문자가 집중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국보로 지정되어, 더욱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있다.
- 보존과 정비는 신청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각종 압력 및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지방정부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유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며 관리체계를 이끌고 있다. 신청유산의 일부에 가해지는 환경적 압력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민의 인식변화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문화재위원회(‘23.4.) 심의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

○ 유산명칭 : 변경

구분	내용
기존 (‘23.04.)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 (변경사유) ①하천 명칭은 신청유산을 선행의 단일유산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용이 ②‘반구대’ 용어가 ‘반구대 암각화’를 지나치게 연상시켜 유산 이해에 장애
수정 및 보완 (‘23.07.)	• 반구천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 (변경사유) : 단어(‘일원’) 재조정

○ 신청유산의 경계 :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3.04.)	- 유산구역 - 하천을 따라 노출된 바위면 기준 ▶유산의 핵심 속성에 집중 - 완충구역 - 유산구역 경계로부터 첫 번째 능선에서 주변 경관의 일체성 가시권 고려 ▶보존이 필요한 경관에 집중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과 일치)
수정 및 보완 (‘23.07.)	- 유산구역 -하천을 따라 노출된 암벽면 기준 ▶특별한 공간의 의미를 충분히 보여주는 가시권 - 완충구역 - 유산구역 경계로부터 첫 번째 능선에서 주변 경관의 일체성 가시권 고려 ▶보존이 필요한 경관에 집중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과 일치)

○ 신청유산 설명 :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3.04.)	- 속성표 및 속성 기여도 분석 결과 반영 - 두 암각화의 공동된 속성과 가치를 누적되는 장소성과 결합하여 일괄 설명 - 암각화와 각석은 상태-주제-구도-제작표현기법-묘사방법-문화상-의의 순서로 기술 2장(설명)과 3장(비교분석)의 논리적 일관성 도모 - ICOMOS 바위그림 주요 요소 기준에 따라 작성 - 수렵채집문화, 농경문화, 고대(신라) 국가로 사회 발전 단계 설정 (어로문화는 수렵채집문화에 포함, 고래그림 등 강조 시 해양어로문화로 구분 서술) - 유산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서술 (유산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함을 뒷받침)
수정 및 보완 (‘23.07.)	2장 유산 설명에서 속성표 제시 : ‘2a.1 신청유산의 개요와 속성’ 반영 장소성 강화 : ‘2a.2.1 유산의 환경’ 추가 - ‘장소는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을 포함하며, 장소가 가지는 특별함으로 암각화 제작 동기 및 배경이 됨 ※신청 유산의 장소성 (주변환경) ①굽이치는 하천, ②일대를 둘러싸는 산, ③하천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암벽면 (입지환경) 암벽면 중 암각에 적합한 ①크고넓은암면②그늘구조③소리울림 등을 갖춘 두 바위

○ 등재기준 : 내용 수정

구분	내용
기존 (‘23.04.)	- 등재기준 (i) 평범한 도구와 보편적 제작기법으로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사실적 입체적 그림은 선사인의 문화와 예술세계를 보여줌. 고래와 고래사냥 그림의 희소성과 독창성은 독보적 - 등재기준 (iii) 6천 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 그림과 문자는 선사~역사시대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상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는 독보적 증거
수정 및 보완 (‘23.07.)	- 등재기준 (i) 반구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이 지역 사람들의 예술세계와 문화를 보여줌. 특히 희소한 주제인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과정의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최고의 작품 - 등재기준 (iii) 반구천의 암각화는 약 6천 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 반구천의 특별한 공간을 따라 바위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누적된 제작 전통의 독보적인 증거. 이러한 그림들은 선사 시대부터 역사 시대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 단계를 한눈에 보여 주는 이례적인 유산

○ 비교분석 : 수정 및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3.04.)	• 속성의 중심 가치 중 가장 뛰어난 가치 비교 ①미적 우수성· 주제 희소성 (고래의 종류· 고래사냥 그림의 단계) ②오랜 제작 전통 (사회 변화 단계) (지리문화적 맥락) 연안에 위치하며 해양어로문화 반영, 동아시아 연안 (비교 대상) 국내(22) → 세계유산 등재 유산(6) → 동아시아 및 연안지역 유산(7)
수정 및 보완 (‘23.07.)	• 속성의 주요 가치 비교 ※ 바위그림 가이드라인 및 속성표 기준으로 서술 ①미적 가치 (주제, 묘사 수준, 구도 측면) ②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역의 예술적 전통 (사회 단계, 누적된 양상) (지리문화적 맥락) 연안 지역에 위치한 바위그림 (비교 대상) 국내(22) → 동아시아 연안 지역 유산(6) → 세계의 연안지역 유산(12)

○ 보호관리계획 :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3.04.)	• 보호관리 관점 전환 - 댐 건설 이후 많은 보존대책을 유산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서술 - 이해당사자의 합의 과정을 시민사회의 성숙 및 가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술 • 콘트롤 타워로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중심의 안정된 관리체계 운영 • 중앙 및 지방정부 분업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 수행 중
수정 및 보완 (‘23.07.)	(위와 같음) •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관련 추진 경과 반영하여 서술 - 사연댐 안정성 강화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23.5, 사업비 확정)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8명 / 가결 8명

보 고 사 항

3. 「한양의 수도성곽」 예비평가 요청서 보고

가. 보고사항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예비평가 요청서를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 예비평가 절차 이행을 위해 예비평가 요청서를 제출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이행 지침에 새롭게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제도에 따라 본 위원회 2023년 제3차 회의(2023.4.13.)에서 예비평가 조건으로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된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 요청서를 보고하는 사안임

▸ **예비평가** :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 당사국 간의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 준비 및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유네스코에 도입한 제도

다. 그간의 추진경과

○ 한양도성 등재 추진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7.3월 : 이코모스 등재불가 권고→등재신청 철회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 등재기준 (iii), (iv) 유산관리 전통, 건축유형 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유산구역 확대(이코모스 패널 권고사항)했으나, 여전히 완전성 부족

- 2019.1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북한산성 등재 추진경과

- 2018.4월 : 잠정목록 심의 결과 ‘부결’(한양도성과의 연속유산으로 검토 필요)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서울시·경기도 등재 추진경과

- 2022.7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2.1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선정'(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2023.1월 : 잠정목록 조정
 - 잠정목록 명칭 조정 : 한양도성 →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 잠정목록 구성요소 조정 : 한양도성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2023.4월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재신청 후보 조건부 가결
 - ※조건 : 세계유산 등재 국의 심사절차 제도에서 신규 도입되는 '예비평가 이행' 권고
- 2023.5월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잠정목록 조정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추진경과

- 2023.2.20. : 제1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유산의 가치, 등재기준, 서울 유산의 속성 등 보완 필요)
- 2023.3.9. : 제2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등재기준, 비교연구 등 보완 필요)
- 2023.3.30. : 제3차 소위원회 개최(등재기준, 비교연구, 보존관리 등 보완 필요)

라. 유산에 대한 설명

1) 유산 개요

- 신청유산은 조선(1392-1910)의 도읍지 한양의 방어를 위해 축성한 수도성곽으로, 행정의 중심지로서 왕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도성(한양도성), 유사시 도성민 모두가 이동하여 방어하기 위한 입보성(북한산성), 도성과 입보성에 필요한 물자의 저장을 위한 창고시설 보호를 위해 쌓은 차단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곡식 성곽의 전형적 특징과 함께 한반도 수도성곽의 유형과 발전을 입증하는 유산이다.
- 신청유산은 계곡을 감싸는 산지의 능선을 따라 원형의 성벽을 쌓은 포곡식 축조방식을 적용하여 조성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축조된 세 개의 성곽이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 기능과 지형에 따른 차이점과 방어 전략적 장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 신청유산은 동북아시아 수도성곽의 유형과 발전을 입증한다. 14세기에 축조된 도성은 수도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내외부를 시각적·관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는 효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 높은 성벽과 위용있는 성문 등으로 구성된 도성을 통해 수도로서의 권위와 상징이 드러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성의 기능은 5세기 동안 유지되었다. 16~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와 화포 등 화약 병기의 출현에 대응하여 수도의 방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한 방어시설로 개선되었다.

구분	문화재명	길이	유산/완충구역 면적
도 성	서울 한양도성(사적)	18.6km	유산구역 : 194.90(ha) 완충구역 : 5412.46(ha)
입보성	북한산성(사적)	11.6km	
차단성	홍지문 및 탕춘대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	5.1km	

2) 유산의 특성/속성을 보여주는 지도

구분	범위	특징
유산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변환경 (Setting)	완충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녹지
넓은 주변환경 (Wider Setting)	북한산국립공원, 백악산 명승 포함	'포곡식 성곽'의 특징을 드러내는 범위로 설정 '방어중심(적의 접근을 저지하는 자연지형 방어선)'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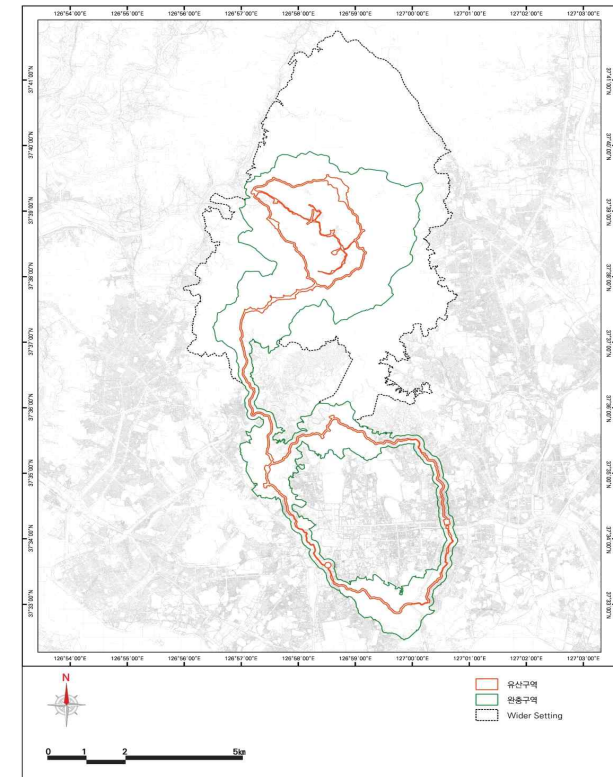


그림 1. 유산의 지도

3) 구성요소 및 속성

구분	기능	구성요소
도 성	조선의 옛 수도의 경계에 축성한 성곽으로 도성 내부의 통치, 제의, 주거시설 등 보호	성벽(석성, 자연암반), 성문, 수문
입보성	도성의 배후성곽으로 위급 시 도성민 전체가 이동하여 장기간의 농성 가능	성벽(석성, 자연암반), 성문, 수문, 암문, 창고지, 장대지, 행궁지 관성소지, 유영지, 승영사찰
차단성	도성과 입보성을 연결하는 성곽으로 적의 침입 차단과 도성민의 입보성 이동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고, 내부에 창고 및 군사 훈련장을 조성하여 위급 시 입보성을 보완	성벽(석성, 자연암반), 성문, 수문, 암문

속성	내용	특징
환경과 입지	산악지형과 자연환경의 장점을 극대화한 입지	- 산악지형의 장점을 극대화한 성곽 축조 - 자연적 경계와 성벽을 방어시설로 활용 - 자연을 활용한 동아시아 성곽 건축의 탁월한 사례
건축 형태와 축성 전통	연주형태의 대규모 성곽	- 기능이 다른 세 개의 성곽이 결합 16~17세기 군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의 성곽
	동아시아 포곡식 성곽 축성전통의 지속과 계승	- 산악의 능선을 활용하고 내부는 수용력을 최대화 확보할 수 있는 포곡식 성곽 - 성곽 내부에 대규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산을 연결하고 계곡을 포함하여 축성
	한반도 수도성곽의 발전	- 한반도에서 전승된 수도성곽 구조의 발전 - 평지성과 산성의 이원적 구조와 평산성의 단일 구 조로 전개된 한반도 역대 수도성곽의 통합적 구현
방어 전략	방어와 대피를 체계화한 전략 계획	- 도성과 연결된 차단성을 통해 입보성으로 이동(입보)하여 방어하는 전략 수립 - 자연지형을 방어중심, 억지력으로 활용하는 전략 - 공격을 차단하고 지연시키는 전략 - 유사시를 대비한 대규모 피난처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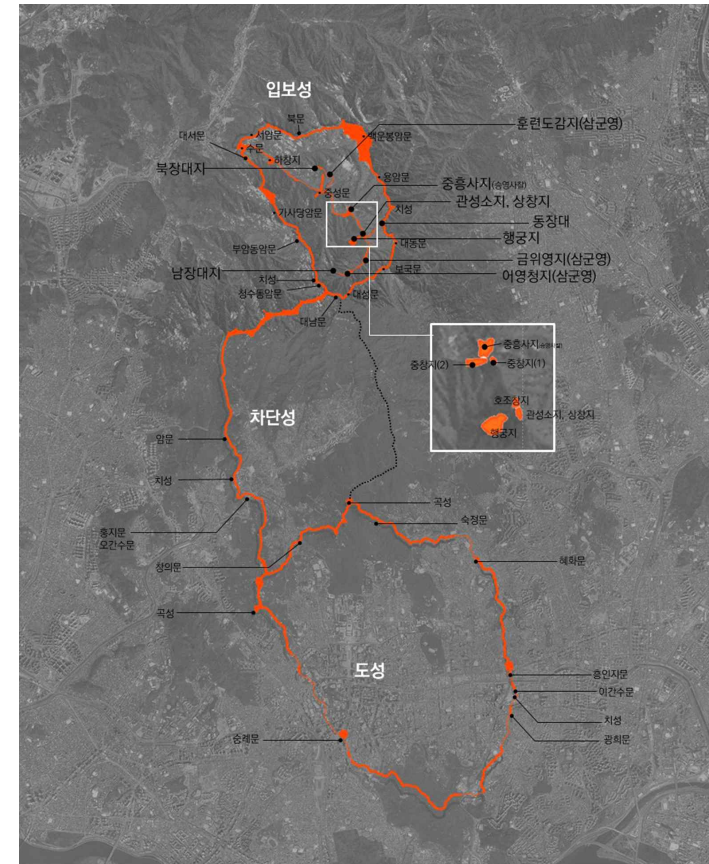


그림 2. 유산의 구성요소

4) 보호 관리

- 신창유산은 20세기 이후 근대화, 도시화에 따른 수도의 급속한 팽창으로 수도성곽은 축성 당시의 형태가 일부 변화되기도 했지만 현재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신창유산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되고 있다.
- 도성은 현재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둘레 18.6km 중 14.5km가 지상부에 남아 사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다. 입보성은 총 길이 11.6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창성은 총 길이 5.1km이며 1921년 홍수에 의해 손상된 것을 1977년 복원하였다.

마. 잠재적 등재신청 유산의 국제적 중요성

- 등재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 증거여야 한다.

잠재적 등재신청 유산은 동아시아 포곡식 성곽 축성전통의 지속 및 창의적 계승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로서, 16~17세기 군사전략 및 무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연주형태의 대규모 수도성곽으로 구현되었다. 고대부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산악지형의 능선과 계곡을 포함하여 성벽을 쌓는 포곡식 축성 방식으로 성곽을 축성해 왔다. 잠재적 등재신청 유산은 수도의 방어를 강화하고 위급 시를 대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규모 인원의 피난전략을 계획한 한반도 수도성곽 축성의 정점을 보여준다.

바. 예비평가 요청서 주요내용

1) 신청서 작성 시 「성곽과 군사유산에 관한 이코모스 지침」(2021) 적용 및 고유한 유산가치 확인

- 전략의 주요 특성인 ①장애물과 얽매, ②지휘 통제력, ③공격 지연 전략, ④측면 방어, ⑤억지력'을 속성 분석 및 비교연구에 활용
- 잠재적 등재신청 유산이 성곽유산으로서 건축적, 영토적, 지리적,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술함(p.55)

2) '등재신청 후보' 심의('23.4월) 대비 주요 변동사항

가) 유산명칭 : 변동없음

-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나) 구성요소

구분	내용
기존 (‘23.4.)	• ‘도성(한양도성)-입보성(북한산성)-창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 단일유산
수정 및 보완 (‘23.7.)	• ‘도성(한양도성)-입보성(북한산성)-차단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 단일유산 - 도성 서쪽 방면에서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성곽 자체의 기능에 집중하여 명칭 변경

다) OUV 변경

구분	내용
기존 (‘23.4.)	• 등재기준 (iii), (iv) • 등재기준 (iii) 포곡식 성곽 축성 전통의 창의적인 계승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 • 등재기준 (iv) 산악 지형의 장점을 활용한 동북아시아 수도성곽 유형의 변화와 발전을 종합적으로 예증하는 탁월한 사례 • 위원회 주요의견 -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라는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포곡식 성곽 축조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며, 한반도 수도성곽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임 - 서술의 중복 배제를 위해 등재기준 (iii)에 집중하여 서술할 것 • 기타 군사유산 전문가 자문의견 - 세 개의 포곡식 성곽이 연결하여 연주형태로 구현된 것은 세계 성곽유산과 비교했을 때 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임 - 10~15만명으로 추정되는 전 도성민의 피난을 고려하여(‘사회적 가치’ 내포) 입보성을 축조 및 관리한 것을 잠재적 등재신청 유산이 지닌 국제적 중요성으로 판단
수정 및 보완 (‘23.7.)	• 등재기준 (iii) 집중 • 등재기준 (iii) 동아시아 포곡식 성곽 축성전통의 지속 및 창의적 계승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로서, 16~17세기 군사전략 및 무기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연주형태의 대규모 수도성곽으로 구현

라) 완전성

구분	내용
기존 (‘23.4.)	• 한양도성 총 길이 18.6km 중 14.5km 잔존(78%), 신청유산 전체 35.3km 중 31.2km (88.4%) 잔존 • 한양도성 완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 -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 유구 발굴 시 사적으로 추가 지정(DDP, 남산 회현자락, 월암 근린공원) - 성벽유구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물리탐사 실시 및 유산분포지도 작성(이코모스 전문가 자문사항) - 한양도성의 성곽 잔존구간을 측량하여 도면화(2014~2015) - 단절구간 바닥에 흔적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선형과 정보 전달 • (‘23.3월) 장기적 차원에서 도성의 완전성 보안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적 관리현황 조사 - 멸실구간 대부분이 이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호·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 ※ 예시 : (장충동 일대) 원지형 보전을 위해 도성 추정선 따라 공동개발 불허선 설정
수정 및 보완 (‘23.7.)	• (서술방향) 현상을 설명하되, 부정적인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을 지양함

마) 비교분석

구분	내용
기존 ('23.4.)	• 동아시아 유사유산과의 비교 : 자연지형 및 지세를 활용하여 성곽 축조 • 중국·베트남은 성벽·성문 강화 및 외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궁성 방어 강화에 초점 • 신청유산은 수도성곽의 범위를 협준한 산악지역으로 확장하여 수도의 방어력을 높이고, 도성민 이동과 농성에 유리한 방어전략을 구현함 • 한반도 수도성곽과의 비교 • 포곡식 성곽인 도성에 연접하여 입보성, 창성도 포곡식 성곽으로 연결하여 대규모 수도성곽 완성 → 포곡식 성곽 축성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한 증거이자 전통의 정점을 보여줌 • 평산성의 도성(일원적 형태)과 인접한 산지에 입보성을 쌓아 기원전부터 전해온 평지성-산성의 이원적 형태의 방어 • 세계유산목록과의 속성 비교 - 아테네 성벽, 인도 자이푸르와 암베르 요새 등과 입지 및 유형의 유사점이 확인되나, 신청유산은 지배층 뿐 아니라 많은 인원의 대피가 가능한 대규모 성곽이며, 입보성과 창성 등의 기능을 가진 성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수정 및 보완 ('23.7.)	① 동아시아 수도성곽과의 비교 : 산악지형 및 지세를 활용한 방어효과 극대화 • 중국·베트남은 성벽·성문 강화 및 외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궁성 방어 강화에 초점 • 신청유산은 수도성곽의 범위를 협준한 산악지역으로 확장하여 수도의 방어력을 높이고, 도성민 이동과 농성에 유리한 방어전략을 구현함 ② 한반도 수도성곽과의 비교 • 포곡식 성곽인 도성에 연접하여 입보성, 차단성도 포곡식 성곽으로 결합하여 연주형태의 대규모 성곽으로 완성 → 세계 성곽유산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형태'의 출현으로 볼 수 있음 • 평산성의 도성(일원적 구조)과 인접한 산지에 입보성을 쌓아 기원전부터 전해온 평지성-산성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하여 한반도 수도성곽 축성의 정점을 보여줌 • 세계유산목록과의 속성 비교 ③ 포곡식 성곽과의 비교 - 인도 왕사성, 중국 거용관 장성 등 포곡식 성곽 조성사례는 확인되나, - 일본의 포곡식 성곽을 '조선식 산성', '백제식 산성'으로 일컫는 점에서 포곡식 성곽을 한반도 고유의 축조전통으로 인식하였음을 확인 ④ 연결된 성곽과의 비교 - 아테네 성벽, 인도 자이푸르와 암베르 요새 등과 입지 및 유형의 유사점이 확인되나, 신청유산은 지배층 뿐 아니라 많은 인원의 대피가 가능한 대규모 성곽이며, 입보성과 차단성 등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성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사.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출석 8명 / 접수 8명